

화	요	일
11	월	27
2007	년	

음력 10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호 외 1판

The Kwangju Ilbo

여수 드디어 해냈다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결선서 모로코 탕헤르 77대 63 놀러



27일 새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밤새 “여수 엑스포”를 외치며 목이 터져라 유치기원 응원전을 펼치던 시민들이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2012년 5월 12일~8월 12일 여수 신항 일대

10조원 생산유발 효과·고용 창출 9만명 기대



“여수 꼬레!”

프랑스 파리 현지시각으로 26일 밤 9시 50분(한국시각 27일 새벽 5시 50분)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장인 팔레 데 콩그레에 “여수 꼬레!”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 여수는 이날 열린 BIE 총회의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끝까지 따라붙은 모로코 탕헤르를 결선에서 제치고 2012엑스포 개최권을 따냈다. 지난 1996년부터 꿈을 키워온 ‘10년 속원’ 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마침내 확정된 것이다.

오는 2015년 엑스포 개최 후보국인 이탈리아와 터키의 프레젠테이션 순으로 당초 계획보다 3시간 여 늦게 시작된 투표에서 여수는 2차 결선 끝에 모로코 탕헤르를 77대 63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 여수는 전체 140표 가운데 68표를 얻었으며 탕헤르는 59표,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13표를 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이어 두 번째 세계박람회를 개최

하게 됐다.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동안 여수 신항 일대 141만m²(43만평)의 엑스포부지에서 2012 인정 세계박람회가 열려 국내외에서 모두 79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2여수엑스포는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등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공동 번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개발도상국가들과 더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및 해양과제를 다루기 위한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사업에 2천만달러를 5년에 걸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2 여수엑스포는 낙후와 소외의 상징이었던 전남의 비약을 통해 남해안의 동반발전을 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권 보유의 숨은 주역이 됐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파리=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9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96년 태동한 여수엑스포가 10년만에 유치된 것은 정부, 전남도·여수시 등 지역체와 지역주민, 기업 등 민간부문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수엑스포를 직접 쟁기고,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는 당면 현안으로 정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김재철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과 정동구 명예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석 여수시장 등은 여수엑스포 선봉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를 주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여수엑스포가 전남발전을 앞당길 대역사라는 데 뜻을 모으고 지역 역량을 총동원, 유치전을 펼침으로써 세계박람회 개최권 보유의 숨은 주역이 됐다.

개최지 발표와 동시에 쏟아울려진 축포와 로켓이 짧빛 하늘을 수놓으며 항도 여수의 새벽을 일깨웠다. 이어 엑스포 유

“2012 여수 꼬레!” 흥분의 도가니

“10년의 한이 풀렸다.”

여수는 모로코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제치고 2012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따낸 27일 새벽, 여수시청 앞 광장은 환호와 흥분으로 뒤덮였다. 10시간 가까이 밤샘 응원전을 펼쳐온 3천여명의 시민들은 ‘10년 숙원’이 풀린 것이 믿거지 않는 듯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

치 성공을 축하하는 모듬북 공연과 농악놀이가 펼쳐지자 시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밤샘 응원을 한 시민 김동문(47)씨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밤새워 목터져라 응원한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4년여동안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선택에 탁월했음을 세계에 보여줬으면

목놓아 외쳤다.

이날 밤샘 응원전은 농악 한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가상 뽕배 띠우기, 시민들의 소망기 전달식, 유치기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자정부터 개최국 발표 시간 직전인 27일 새벽 2시까지는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유치 성공 기도회가 열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이날 여수시청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박람회 유치를 지원했다. 정 후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여수·순천·광양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2012 세계박람회 유치는 여수 시민들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았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도 수백명의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개최지 발표와 함께 축포를 쏘고 꽃가루를 뿌리며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수=박양구·이종행기자 golee@
/목포=이상선기자 sslee@

10시간 밤샘 응원 시민들 얼싸안고 눈물

축포·로켓·농악놀이 시가지 ‘들썩 들썩’

리기도 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인 프랑스 파리의 ‘발레 데 광그레’에서 전송된 TV생방송을 가슴졸이며 지켜보던 여수시민들은 “여수 꼬레!”가 울려퍼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개최지 발표와 동시에 쏟아울려진 축포와 로켓이 짧빛 하늘을 수놓으며 항도 여수의 새벽을 일깨웠다. 이어 엑스포 유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공무원 이근철씨도 “여수시민들과 공무원들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1년 반 이상 기울여 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영하의 체감온도 속에 26일 오후 7시부터 여수시청 앞에 모여든 여수시민들과 공무원들은 태극기와 2012 엑스포기를 흔들면서 ‘여수 코리아’ ‘여수 브라보’를